



중국 제조업 경쟁우위 하락 논란

왕양비 연구원

■ 최근 인건비 상승과 위안화 절상으로 중국 제조업의 경쟁력 하락 여부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, 스위스유니온은행(Union Bank of Switzerland)의 경제학자 Jonathan Anderson이 중국 제조업의 황금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의견을 제기함.

- 2004~2009년 동안 중국 단위노동비용(Unit Labor Cost, CEIC data)이 약 50% 상승한 가운데, 동 상승폭은 이전 5년간(1999~2004년) 상승폭(12%)을 크게 상회한 수준임.
- Jonathan Anderson은 임금 상승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중국 제조업의 시장점유율 확대가 이미 한계에 부딪힌 한편, 인도, 베트남, 방글라데시, 인도네시아 등 저임금 국가들이 동 제조업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고 주장함.

■ 한편, 스코틀랜드왕립은행(Royal Bank of Scotland)의 수석 경제학자 Li Chui는 이와 상반된 의견을 제기함.

- 지난 9월 7일 Li Chui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인건비의 빠른 상승에도 불구하고, 전 세계 무역액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수출액 비중은 여전히 빠른 성장세를 보임(2005년 7%에서 2010년 11%로 확대).
- 이는 대형 기계, 조선, 기관차 등 인건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자본집약적 중공업의 수출 성장¹⁾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됨.
- 인건비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경공업의 경우에도 전 세계 무역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 22%에서 2010년 33%로 확대됨.

1) 2010년 자본집약적 중공업 수출은 중국 총 수출액의 53%를 차지하며, 2001년에 비해 동 비중이 14%p 늘어남.

■ 아울러 Li Chui는 중국 제조업의 장기적 경쟁우위 유지 전망에 대해 다음과 같은 3가지 이유를 제시함.

- 첫째, 노동집약적 산업 중국 노동자의 경험 축적으로 전문화된 제품에 대한 생산능력이 구비됨.
- 둘째, 중국 국내시장의 수요 확대로 규모의 경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.
 - 동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이후 국내 수요의 증가로 중국 제조업체의 매출증가율이 연평균 24%에 달함.
- 마지막으로, 중국 제조업체가 오랜 경험을 통해 축적된 기술력으로 제품을 업그레이드하고, 이를 통해 제품가격을 높임으로써 제조원가의 일부를 해외시장으로 전가시킬 수 있음.

(스코틀랜드왕립은행 9/7, WSJ 9/8 등)